

'초통령' 로블록스에 5·18 비하 게임이?



300자로 hiphot 섭취하는 스낵뉴스

어린이들이 즐겨하는 게임 플랫폼 로블록스에 5·18민주화운동을 왜곡·편향하는 게임이 등록돼 논란이 일었다.

로블록스는 사용자들이 자신만의 게임이나 세계를 만들어 공유하고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특히 초·중·고등학생들 사이에서 인기를 끌며 '초통령'이라고도 불린다.

그러나 최근에는 로블록스 '그날의 광주'라는 게임이 논란의 중심에 섰다. 이 게임은 5·18 민주화운동을 배경으로 하며, 각 게임군과 경찰, 시민군 등의 역할을 맡은 플레이어들이 서로 총격을 가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더욱이 이 게임은 땅굴을 따라가면 북한 노래가 나오는 등 일명 '북한군

침투설'과 같은 역사적 왜곡 내용도 포함돼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 초등학교생이 해당 게임을 플레이한 후 문제를 제기하면서 이에 대한 논란이 확산됐다. 이후 로블록스 측은 사과를 표명하며 게임을 삭제하기로 결정했다.

로블록스 측은 "민감한 사건에 대한 명시적인 금지 규정을 갖고 있다"며 "이와 같은 콘텐츠나 행동을 신고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해당 사례에 대해 신속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5·18 기념재단은 "추가적인 법적 대응은 하지 않을 것이지만, 역사를 왜곡하거나 편향하는 활동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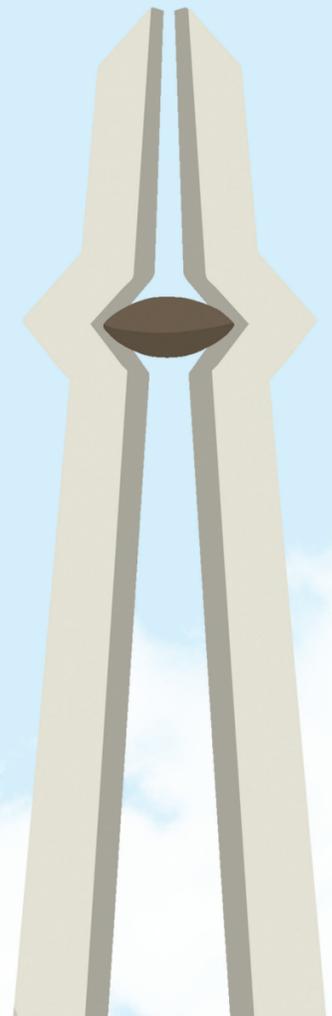


로블록스 '그날의 광주' 게임 화면 캡처.



로블록스 '그날의 광주' 게임 설명.

출처=JTBC



#SnackNews #5·18비하게임 #강주비기자 #박지은편집디자인

22대 국회의원을 뽑은 총선에 대한 소감

기고

정항암
소설가
한국문인협회 회원



지난 4월10일, 차기 국회의원 300명을 선출한 22대 총선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여당인 국민의 힘보다 야당인 민주당이 약진해서 다수의석을 차지했다. 하지만 여당이나 야당이 합의하지 않고 단독으로 개헌에 찬성하거나 특검법을 재의결하지 못하도록 만든 절묘한 조합이었다.

1심 법원과 고등법원에서 실형을 선고 받고 대법원의 마지막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 조국의 조국혁신당이 비례대표 12명을 당선시켰다. 이준석의 개혁신당도 지역구에서 1명과 비례대표 2명을 배출했다. 이낙연의 새로운 미래와 진보당은 비례대표 당선자가 없이 각각 1명의 지역구 당선자가 나왔다. 심상정의 녹색정의당과 송영길의 소나무당 등 군소정당은 선출직인 지역구는 물론이고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단 1명도 배출하지 못했다. 필자는 우리나라 국민 중 대다수 유권자는 국회의원이 되고자 하는 인물을 선출할 때 후보들의 뉘앙스와 선명성에 대해서 알고 투표했는지를 따지려고 하는 말이 아니다.

1948년 8월 15일, 이승만 정부가 탄생한 이후 수많은 선량이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으로 선출되었다. 1950년 6·25 한국전쟁과 1960년 3·15 부정선거, 4·19 학생혁명, 1961년 5·16 군사쿠데타, 1979년 10·26 사태와 1980년 5·18 광주 민주화운동 등 수많은 역경을 겪는 동안 유권자들은 여당이나 제1야당을 선호하는 양당 체제를 선호했다.

1961년 5·16 군사쿠데타 이후 선출된 박정희 대통령과 1979년 10·26 사건 이후 등장한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등 영남 출신 대부분이 대통령으로 당선되었다. 김영삼 대통령에 이어서 당선된 김대중 전 대통령만 호남 출신이다. 이명박, 박근혜, 윤석열 대통령도 영남을 기반으로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영남의 대부분 유권자는 보수 우파를

지향하는 정당을 지지하는 반면, 호남의 대부분 유권자는 진보를 지향하는 정당을 선호하고 있다.

필자는 특정한 인물을 옹호하거나 지역 감정을 유발하려고 하는 말이 아니다. 지난 70여 년 동안 역대 대통령을 살펴보면 그런 경향이 농후했다.

진보 정당이라는 명분과 실리를 앞세운 호남 유권자들은 영남 출신 진보 성향 인물을 대통령으로 당선시키는 일에 동참했다. 그 결과 호남지역 출신 정치가 중에서 장래가 촉망된 인물을 발굴하고 뒷받침해 기보다는 애초부터 자라지 못하도록 삭을 잘라버린 결과를 초래한 일은 아닌지 생각할 일이다.

새로운 미래당을 창당하고 22대 총선에 출마한 이낙연 후보가 지역구 유권자들에게 선택되지 않았다. 그는 여당 대표 일 때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명박 전 대

통령의 사면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건의한 일로 동료 국회의원과 일부 국민의 미움을 산 일이 문제가 되어서 대선 가도에 빨간불이 켜졌다는 말도 있다.

"이낙연이 고향을 위해서 해놓은 업적이 뭐냐, 아무것도 없지 않느냐. 그런 사람이 뻔뻔하게 찾아와서 출마하면 되느냐" 총선에 출마한 지역구 유권자로부터 들려오는 이야기였다. 필자는 어느 지역을 불문하고 특정한 지역을 기반으로 당선된 국회의원은 국가와 국민 모두를 위해서 일하는 선량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필자는 어느 지역을 막론하고 군소정당 후보도 국회의원에 당선될 수 있는 선거 제도를 바라면서 '22대 국회의원을 뽑는 총선에 대한 소감' 을 말했다.

* 외부 기고는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보약·홍삼은

40년 오직 한 길!

복고당 한약방

6년근 홍삼 100% 60포 ▶▶▶ 15만원 (주문판매)

홍삼 검사품 생산지 직거래로 저렴합니다 농협 653-1200-3100 (예금주 박주환)

미세먼지 예방 (기관지 보호)

도라지 오미자 삼백초 한 박스 50포 ▶ 5만원

무릎 관리 활기찬 삶! 산수유 두충 60포 ▶ 12만원

天下보다 귀한 생명!

성인병 노화방지는 적절한 운동과 마음의 편안, 음식조절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동 776-12 (광주새우리병원 건너편 2층) 062)369-9227